

## 일제강점기 개성상인 崔善益의 언론·문화사업\*

이 철 성\*\*

1. 머리말
2. 경제 기반과 금전관
3. 인적 기반과 언론 사업
4. 교육 사업 및 사회·문화 활동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개성 출신의 실업가 崔善益(夢草, 1904~?)을 통해서, 개성의 인삼 자본가가 근대 기업가로 변신하고, 다시 언론·문화사업에 투신하면서, 활동 무대를 고향 개성에서 중앙의 경성으로 서서히 이동시킨 실증적 사례 연구이다. 최선익은 개성 갑부의 아들로서, 불과 16세의 나이에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벼락부자였다. 그의 경제적 기반은 인삼 재배업, 농지경영, 市邊 등 개성의 전통적 산업이었으나, 최선익은 1920년대 개성의 부호와 신진 엘리트들과 연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전기·고무·직조업 등에 투자하고, 직접 개성상사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 근대적 기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사업장을 인천과 경성으로 확대하면서, 무역업·매매업·금융업 및 주류 회사도 운영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언론은 최선익을 '청년 문화사업가'로 규정하고 그의 행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그가 3.1운동 이후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대표논저 : 2021, 「18·19세기 조선과 일본의 인삼 재배기록 비교연구」, 『세계 역사와 문화연구』 60 : 2018, 「1880년 論山 遜巖書院의 移建과 재원확보」, 『역사와 담론』 88 : 2018, 「淵齋 宋秉璿의 黃山舟遊와 문화경관 인식-〈遊黃山及諸名勝記〉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70.

인 1924년 신석우가 조선일보 경영에 나설 때 공동투자했고, 1932년에는 조선중앙일보의 판권을 인수하여 여운형을 사장으로 자신은 부사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1920년대 당시의 최고 전문 운영자와 보육교사를 초빙하고 최신의 설비를 갖춘 수송동유치원을 개원 운영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최선익이 청년 문화사업가로서 주목받으며 활동할 수 있었던 기반은 첫째, 그가 고향 개성이 아닌 경성의 중앙학교[중앙고보]로 진학하여 폭넓은 학연을 맺었다는 점, 둘째, 경성 북촌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전통 양반 및 신지식인층과 교류하고 인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 셋째 개성 출신으로 경성이나 일본에서 유학한 인사들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선익은 김성수, 안재홍, 송진우, 여운형 등 당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김동성, 이선근, 공성학, 고한승, 진장섭, 마해송, 김영보 등 개성 출신 인사들과의 인연을 맺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 그가 언론·문화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인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인적·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최선익은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투자하고, 수송동유치원을 운영했으며, 각종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그의 청년 문화사업가로서의 10여 년은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다. 당시 언론사 경영은 잦은 정간과 폐간 등으로 각종 채무를 증가시켜 자금난에 부딪쳤고, 출자금 증자에 따른 경영권 분쟁도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선익 역시 언론사 경영과 수송동유치원 운영을 접었고,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즉 일제강점기 언론·문화사업은 투자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손실의 위험이 더 큰 사업이었고, 언론 문화사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경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최선익의 활동은 개성의 전통적 산업에 기반을 둔 자본가가 근대 기업 및 언론문화 자본으로 전환한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로서 주목될 것이다.

## 1. 머리말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조선의 지주, 갑부, 기업인, 유지에 대한 개인의 생애사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이들의 삶과 활동을 학문적 대상으로 올리는 일 자체가 종종 ‘민족성 是非’의 불쏘시개를 세상에 내던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인 기업가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컨텍스트(context) 속에

서 항상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었던 증인이었다. 혼돈의 시대, 격변의 시대에 그때 그 자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균형감 있는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삶의 자취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개성 출신 기업가 崔善益(夢草, 1904~?)의 경우 역시 그러하다.<sup>1)</sup> 최선익의 활동은 3.1운동 이후 문화통치기 민족계열 운동의 방향성과 궤적을 같이한다. 1924년 申錫雨가 경영난에 허덕이던 『조선일보』의 판권을 인수할 때 함께 공동투자했고, 1932년에는 스스로 『조선중앙일보』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됨으로써 조선의 대표 언론사의 경영진이 되었다. 또한, 1925년에는 최신의 설비와 교육자를 초빙하여 수송동유치원을 설립 운영하고, 1927년에는 신간회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비롯하여 사회·문화·교육·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과 각종 모임과 단체에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였다.

그러기에 당시의 잡지 『삼천리』는 최선익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청년 문화사업가'라고 규정했다. 그만큼 최선익이 함께한 주변 인물들은 당대 최고의 민족지도자, 신진 엘리트, 巨富, 실업가들이었다. 하지만 최선익 자신의 시각에서 남겨 놓은 문서나 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대 인사들의 기록과 신문·잡지 자료에서도 그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선익의 가계·사상·교유 관계 등에 대한 규명은 단편적 자료와 구술에 근거하여 추론한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 개성상인 연구나 개성 지역사 연구가 갖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충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첫째 개성지역의 인삼 자본이 일제강점기 산업자본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얻을 수 있는 인물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1) 최선익의 인사 기초자료는 康晉和, 『大韓民國人事錄』(內外弘報社, 1949)이다. 이에 따르면 그는 경기도 개성부 출신으로 1949년 현재 45세, 직업은 實業家, 조선일보사 상무이사 겸 영업국장, 개성상사주식회사 사장, 조선중앙일보사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1944년부터 1949년까지 경성전기주식회사 상무로서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이다. 여기서는 최선익의 언론·문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된 1920~1930년대 후반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일제강점기 개성 자본가가 경성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학연 및 교류 관계 형성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 사례 연구라는 점이다. 셋째,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과정상의 언론·문화사업 분야에 자본가의 역할이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라는 점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최선익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개성의 인삼 자본가가 근대적 기업가로 변신하고 다시 언론·문화사업에 투신하면서, 활동 무대를 서서히 고향인 개성에서 중앙의 경성으로 이동시킨 인물을 학계에 소개하는 첫 연구가 될 것이다.

## 2. 경제 기반과 금전관

최선익은 1904년 경기도 開城 출생으로, 큰아버지 崔性求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는데,<sup>2)</sup> 개성 부자들이 살던 동해랑 끝의 마목길에 집이 있었다고 한다.<sup>3)</sup> 양부 최성구는 개성에서 큰 장사를 하고 市邊을 놓았으며, 蔘圃를 운영하면서, 최선익의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sup>4)</sup> 이에 최선익은 1917년(13세) 개성 제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sup>5)</sup> 경성의 중앙학교에 진학했다.<sup>6)</sup> 이로 인해 고향에서는 다른 소년들과 끼어 노는 최선익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sup>7)</sup> 중앙학교와의 학연은 경성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 2) 吳壽山, 「空手로 一攫千萬金, 벼락 富子傳」, 『별건곤』 57, 1932년 11월 1일(이하 「공수로 일확천만금, 벼락 부자전」).
  - 3) 김조형 위원의 구술이다. 김조형 씨는 1935년 개성에서 출생, 1950년 6.25로 실향민이 되었다. 이후 1954년 대전고등학교, 1958년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해 약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1959년 한독약품에 입사한 이후 1988년 한독약품 사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재)개성시민회 이사 겸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성 지역사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 논문 작성에 필요한 구술 자료는 김조형 위원의 厚意에 전적으로 힘입었다.
  - 4) 최선익의 부친은 하얀 무명으로 허리띠를 만들면 다시마처럼 새까맣게 때가 묻을 때까지 써서 별명이 다시마 허리띠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개성에서 최성구 씨라면 잘 몰라도 다시마 허리띠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공수로 일확천만금, 벼락 부자전」).
  - 5) 최선익은 1917년 3월 25일 제일공립보통학교 즉 만월초등학교 제8회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했다(『매일신보』 1917년 3월 27일).
  - 6) 현재의 중앙중·고등학교이다.

그러나 최선익은 불행히도 1920년(16세) 무렵 부친이 일찍 작고하면서, 중앙학교를 그만두고 가업을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로 인해 그는 졸지에 '벼락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대학에 진학하거나 해외 유학길에 올라 학업을 계속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8)</sup> 훗날 그가 '어려서는 문예 서적을 열심히 읽었지만,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어 전공 서적은 읽을 수 없어서 독서는 신간 잡지류나 신문을 뒤적일 정도요, 음악도 듣기는 좋아하나 자신이 할 줄은 모르며, 운동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라고 솔직한 바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sup>9)</sup>

하지만 최선익의 외모와 스타일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모던 스타일이라서, '물샬 틈 없이 꼭 짜인 사람', '몸 전체가 가늘지도 굵지도 키다리도 풀망이도 아닌 날씬한 스타일', '늘 보아도 옷 깨끗이 입고 바지가랑이는 아이통질[다림질]하여 줄이 서고, 넥타이도 새 것, 칼라도 순백(純白)'이라고 했다.<sup>10)</sup> 청년 갑부이자 돈이 꽤 있는 상류층의 외모가 짙게 풍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술은 꼭 좋아하는 편인데, 실수하고 정신을 잃게 되지만 않으면, 정치와 사고 방면에는 좋은 경우가 있다.'<sup>11)</sup>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사업가의 기질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경성 중앙학교 재학 중에 벼락부자가 된 최선익 집안의 경제적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최성구)가 생전에 물론 크게 장사를 하고 돈뇌이[貸金業]를 만히 하였스니까 부자인 것이야 누구나 다 알었지만은 그러케 큰돈이 잇는 것은 자기 가족까지도 잘 몰랐다가 급기야 죽을 때에 재산을 공개하니 놀나지 마시오. 께스속에 뽕뽕 뭉쳐서 두엇든

- 
- 7) 김조형 위원이 최선익 씨 덕 인근에 살던 친구에게 문의하여 전해 준 일화이다.
  - 8) 『삼천리』에서는 동경 와세다대학 출신이라고 했으나, 그의 대학 진학이나 동경 유학은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滄浪客記, 「時急 뉴-쓰, 朝鮮, 中央, 兩新聞 復活內幕, -오랫동안 잠겼든 문이 엇더케 열려졌나-, 『삼천리』 제4권 제12호, 1932년 12월 1일(이하 「시급 뉴-쓰, 조선, 중앙, 양신문 부활 내막」); 「鬪志滿腹의 歷代巨頭」, 『삼천리』 제5권 제4호, 1933년 4월 1일).
  - 9) 千里里社, 「三十萬圓을 新聞에 너흔 崔善益氏」, 『삼천리』 제7권 제10호, 1935년 11월 1일(이하 「삼십만원을 신문에 너흔 최선익 씨」).
  - 10) 卜惠淑·覆面客 「長安 紳士 淑女 스타일 漫評」, 『삼천리』 제9권 제1호, 1937년 1월 1일(이하 「장안 신사 숙녀 스타일 만평」).
  - 11) 「삼십만원을 신문에 너흔 최선익 씨」.

지전문치가 수십만원이요. 그외 은행예금, 도지, 삼포(蔘圃) 등... 총 재산이 약 팔십만원 이었었다 한다. 이 큰 재산을 누가 한 푼도 손대일 사람이 업고 다만 당시에 나아린 최선의의 군이 상속하야 개성에서 몇재 아니가는 소년 벼락부자가 되었다.<sup>12)</sup>

최선의 집안은 개성에서 장사를 크게 하고 시변을 놓았으며, 토지경영과 인삼 재배업으로 거부를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최선의의 물려받은 재산은 약 80만 원으로, 이는 당시 개성의 10대 부호를 꼽는 기준이 자산 30만 원 이상이였음을 감안하면,<sup>13)</sup> 최선의의 소년 벼락부자라고 표현한 것도 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집안의 가업이자 안정된 자산 증식의 방식은 인삼 재배업이었다고 판단된다. 조선총독부 전매국 개성출장소에서 인삼 산업의 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포상에서, 최선의의 1924년(20세) 2등 포상자,<sup>14)</sup> 1925년(21세)과 1926년(22세)에는 3등 포상자였기 때문이다.<sup>15)</sup> 또 1932년(28세)에는 '들취 때가 인삼밭을 파헤쳐 삼포 80칸의 생인삼을 모조리 먹어 치워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sup>16)</sup> 그 삼포가 바로 長湍郡 津南面 蘆下里 최선의의 인삼밭이었다.

일제강점기 개성 인삼산업은 인삼경작자 중심으로 구성된 高麗蔘業社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대표적 인물은 孫鳳祥(1865~1936), 孔聖學(1879~1957), 金正浩(1886~?) 등이었다.

손봉상은 대대로 인삼재배를 가업으로 삼았는데, 당시 인삼 경작계의 최대 삼포 주인이자 인삼대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1927년 『동아일보』는 “고려 인삼의 생산지로 인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적지 않으나 회사제로 조직되어 있는 곳은 오직 고려삼업사뿐이다. ... 사장은 현재 개성삼업 조합장을 겸임한 인삼대왕 손봉상 씨라고 한다. 고려삼업사에서는 高麗白蔘, 高麗蔘精과 기타 인삼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데 ... 연 판매고는 40

12) 『공수로 일확천만금, 벼락 부자전』.

13) 삼천리사, 『삼천리 壁新聞』, 『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년 10월 1일(이하 「삼천리 벽신문」, 1931년 10월 1일).

14) 『동아일보』 1924.04.27.

15) 『동아일보』 1925.04.29 : 『시대일보』 1925.4.30 : 『시대일보』 1926.04.26 : 『조선신문』 1926.04.28.

16) 『동아일보』 1932.05.22.

여만 원 이른다.”<sup>17)</sup>고 하였다. 손봉상은 이외에도 임대업, 상품도산매, 창고업 및 금융업 등의 업무를 하는 합자회사 永信社의 사장과 개성전기주식회사의 이사를 맡는 등 개성 경제계의 원로 역할을 수행했다.

공성학은 孔應奎의 둘째 아들이다. 공응규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으로 상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이 자본으로 삼포경영을 시작하였는데, 구한 말에는 삼포경영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공성학이 일제강점기 인삼경작을 크게 함으로써 개성에서 손꼽는 거부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김정호는 1900년대 삼포업에서 성공을 이룬 김진구의 아들로서, 1915년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신진 엘리트였다. 손봉상, 공성학 등과 함께 영신사에 참여한 인물이며, 개성전기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며 최대의 부호라고 알려졌다.<sup>18)</sup>

그런데 최선익이 펼친 개성에서의 사회경제 활동은 대부분 이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즉 최선익은 1920년대 김정호, 공성학, 金基永, 김원배 등과 함께 개성전기주식회사의 발기인이자 대주주로서 감사역을 맡았다.<sup>19)</sup> 또한 김정호, 김지영, 황중현, 韓宗洙, 韓鶴淳, 林漢祖, 馬鍾洙 등과는 종자, 묘목, 농구, 비료의 양성 및 직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송도식산회사 창립을 준비했다.<sup>20)</sup> 마찬가지로 김정호, 김기영, 김동성, 공성학, 韓喆鎬 등과는 각종 고무 물품의 제조와 고무 원료를 판매하는 송도고무[護謨]공업주식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였다.<sup>21)</sup> 또한 면직물, 양말을 제조해서 팔았던 송고실업장주식회사에서도 대주주 김정호, 공성학과 함께 감사의 역할을 맡았다.<sup>22)</sup>

최선익이 김정호, 공성학, 손봉상과 20여 년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최선익 가문의 재산형성 과정이 인삼 재배업을 기반으로 시변 등 개성의 전

17) 『동아일보』 1927.11.01.

18) 양정필, 2007,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 『역사와 현실』 63.

19)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7). 설립일은 1917년 4월 14일이다.

20) 『중외일보』 1927.03.11.

21) 『조선은행 회사조합 요록』(1929). 설립일은 1927년 4월 29일이다.

22) 『조선은행 회사조합 요록』(1931). 설립일은 1929년 2월 15일이다.

통적 산업과 상업 방식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sup>23)</sup> 그리고 같은 이유로 그는 1933년 『고려시보』에서 밝힌 개성의 대표적 10대 부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sup>24)</sup>

〈표 1〉 1930년대 호별세 등급으로 본 개성의 부호

이름	1933년 호별세 등급	1934년 호별세 등급	비고
金正浩	4등급	3등급 ↑	
韓明錫	6등급	5등급 ↑	
安承億	7등급	5등급 ↑	*황해도 대지주
高漢鴻	7등급	5등급 ↑	
俞漢模	7등급	9등급 ↓	*황해도 대지주
朴尙愚	8등급	10등급 ↓	
손봉상	9등급	9등급-	
최선익	9등급	11등급 ↓	
공성학	10등급	9등급 ↑	
金元培	10등급	9등급 ↑	
文泰均		10등급	*1934년 진입
朴東珪		10등급	*1934년 진입
秦柄建		11등급	*1934년 진입

자료 : 『고려시보』 1933년 5월 16일 : 『고려시보』 1934년 5월 16일

〈표 1〉을 보면 1933년 최선익은 호별세 총 50등급 가운데 손봉상과 같은 9등급이었고, 1934년에는 손봉상, 김원배, 공성학에 이어 11등급이었다. 안승역과 유한모가 황해도의 대지주였던 점을 생각하면, 최선익이 개성지역의 10대 부호 안에 들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최선익은 스스로 독립 사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했는데, 개성에서부터 인천과 경성으로 무대를 확장해 나갔다. 1928년 설립한 開城商

23) 당시 『삼천리』에서 입삼 시세와 연결지어 개성에서 30만 원 이상의 부호를 金元培, 최선익, 고한승으로 꼽았던 것도 최선익이 이어받은 재산 가운데 삼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말해준다(『삼천리 벽신문』, 1931년 10월 1일).

24) 『고려시보』 1933.05.16. : 『고려시보』 1934.05.16.

事株式會社は 최선익의 대표 사업체였다.

개성은 12만 대중의 棲息地로 곁하여 全朝에 유수한 상업지대에 불구하고 아즉까지 商事に 관하여 활동하는 기관이 없더니 이를 유감으로 생각한 개성 유지 청년 최선익씨 외 5~6인의 발기로 개성상사 주식회사를 창립코자 주주 모집에 노력 중이더니 (중략) 자본금은 20만 원으로 영업 종목은 석유, 맥주, 석탄 등속을 대규모로 무역하여 수용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더라<sup>25)</sup>

개성상사주식회사는 이 이외에도 면사포, 곡물, 잡화류의 판매와 창고 금융의 각종 영업도 함께 했는데, 최선익이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였다. 당시 이 개성상사주식회사는 청년에게는 경제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대금업이 성행하던 개성의 경제적 관습과 경제 이념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sup>26)</sup>

〈표 2〉 최선익 주도의 사업체 일람

회사명	설립일	주소지
開城商事株式會社	1928.9.1	개성군 송도면 북본정 119
大鍾商事	1929.4.30	인천군 송림리 231
德興社	1935.5.28	경성부 돈암정 391-3
第一社	1937.3.10	경성부 의주통 1정목-1
東明酒造 합자회사	1938.1.17	경성부 돈암정 391-2

자료 :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표 2〉에서 보듯이, 최선익은 인천에서 모·건·면사 무역 및 직조업 등을 목적으로 1929년 설립한 대종상사주식회사의 이사였으며, 1935년에는 경성에 곡물·면사·면화 및 토지 매매 등을 업무로 하는 합자회사 덕흥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어 1937년에는 금융업 합자회사 제일사에도 투자하였고, 1938년에는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합명회사 동명주조의 최대 지분 소유자였다.

25) 『중외일보』 1928.08.22.

26) 『중외일보』 1928.09.04.

기업가로서의 최선익의 경제사상은 1930년 『동아일보』가 개성에서 상공발전을 주최로 개최한 순회좌담회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개성상사주식회사 사장의 자격으로 참석한 이 좌담회에는 변호사 孔鎭泰, 송고실업장 상무 黃仲顯, 송도면 의원 金永澤, 식산은행 지점장 全敎春, 경기도 평의원 林漢瑄, 한성은행 지점장 李東九 등 9명이 참여했다.

이 좌담회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개성은 상업도시가 아니라 상인도시이다. 경성과 평양의 큰 도시 사이에 끼여 물화의 집산과 자본의 유통이 없는 지역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이에 대해 최선익은 개성의 시변제도도 영구할 수 없으니 고식적 수단을 버리고 대세에 착목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한선은 자본 연합의 기운이 생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한성은행, 식산은행 등 은행보다는 그 중간인 금융회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진태는 공동 신용은행을 조직하여 시변의 영업세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떠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개성을 공업 도시로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에 송고실업장 상무 황중현은 만주사변의 기운이 감도는 시기로, 국외 시장에 타격이 있어 국내 판로를 확장하려는데,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하면서 동시에 설비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최선익은 송고직의 선전 즉 마케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광고와 대중적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sup>27)</sup>

이를 정리해보면 최선익의 경제적 기반은 전통적인 개성의 인삼 재배업과 대부업이었으나, 개성지역의 전통적 대부제도인 시변제도 등 개성지역의 경제관습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20~30년대 성장한 개성의 신진 엘리트들과 연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전기업, 고무업, 직조업 등에 투자하는 한편 개인 사업체 개성상사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930년대 중반부터는 사업을 인천과 경성으로 확대하면서 매매업과 주류업을 운영하였고, 금융업에 대한 관심과 홍보와 마케팅 분야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던 실업가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는 1935년 경성부 가회동의 유명한 근대 한옥의 소유자가 되는데, 이는 최선익의 유산과 경제 활동으로 얻은 부의 상징이었던

27) 『동아일보』 1930.10.06. 개성편3. 『동아일보』 좌담은 총4회로 연재되었다.

다. 이 집은 1913년 6월 한상룡이 압록강의 곰솔[黑松]을 사용해 완성한 것으로,<sup>28)</sup> 1928년 한성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을, 1935년 최선익이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1944년 의사 白麟濟(1898년~미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sup>29)</sup>

1935년 이 가옥에서 이루어진 잡지 『삼천리』와의 대담에서 최선익은 한옥에 대한 소견을 이렇게 밝혔다.

조선사람의 생활에는 역시 조선식 건물 양식이 제일 좋은 듯합니다. 첫째 쓰기가 편리하고, 日光이 잘 들어오고 공기 유통이 잘 되어서 실로 이상적 가옥 제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김치 깎둑이 먹고, 바지, 저고리를 입는 우리로서는 이런 집 제도가 제일 좋을 듯합니다. 요사이 중류 이상 사람들의 주택들을 보면 대개 양옥 비슷하게 있는데, 그것이야 죽도 안이고 밥도 안이지요.<sup>30)</sup>

최선익의 조선문화에 대한 애착과 미안(美眼)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그의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을까? 「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사회에 있어서 제일 가는 것으로 아십니까?」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내가 어떠한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치 있게 사회에 유효하게 쓰면 그야 귀한 물건이지요.<sup>31)</sup>

진행자가 다시 물었다 「선생은 이제 다시금 그 어떠한 방면에다, 그 많은 재산을 쓰실 작정입니까?」

어떤 이들은 돈이 얼마만 있어서도 무슨 사업을 하겠느니 머니 합테다마는, 나는 그런 공상은 없지요. 내가 돈이 있으면 가치 있게 쓰는 것이고, 없으면 못 쓰는 것이지

28) 주소는 경성부 북부 가회동 93번지이다(『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2).

29) 현재 서울 북촌의 백인제 가옥(서울시 민속문화재 제22호)으로 더 유명하다(서울역사박물관, 2019, 『北村 十一家의 오래된 기억』).

30) 「삼십만원을 신문에 너흔 최선익 씨」.

31) 「삼십만원을 신문에 너흔 최선익 씨」.

요. (중략) 나는 본래 돈 쓸 줄만 알고 돈 모을 줄은 도모지 모르기에 아예 그런 생각 붙임 안 합니다. 나는 개성사람이라도, 장사할 줄도 몰르고 돈 모을 줄도 모릅니다.<sup>32)</sup>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듯한 조심스러운 답변 속에서도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본인의 생각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대답자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돈을 어떻게 버는 줄은 모르고 어떻게 쓰느냐 만을 안다.’는 그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의 대답은 역시 신중했으나 뜻은 분명했다.

유산에도 一短一長의 양면이 잇슬 줄로 압니다. 아마 젊은 사람이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個性이란 완전히 발휘하지 못할 것 같해요. 과거의 예로 보면, 유산만 믿고, 자기의 독자성을 잃고, 그냥 집재산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폐단이 많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유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하겠지요. 그 때에는 다만 어떻게 유리하게, 사회적 요구에 적당하게 쓰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이것만을 잘 가린다면, 그야 말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sup>33)</sup>

이어 그는 “내 자신만 두고 보드래도 유산을 받기 전까지는 어린 마음과 기본적인 理想만 커서, 내가 장차로는 이러 이리한 사업을 허려니 하고 마음을 먹지마는 일단 유산을 받고 보면 그때의 모든 주위의 환경이나 가정적 사정으로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되드군요.”라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민을 술회하였다.

또한 “젊은 사람이 유산을 받는 것은, 그 돈을 잘 쓰고 못쓰는데 따라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마는 그 사람 자신으로 볼 때에는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여 그의 삶이 화려하기보다는 고단하였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날의 대답을 『삼천리』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氏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아침 햇발도 어느 사이에 이 어리어리한 늙다란 마루 대청에 쩍과 퍼져 온 방안이 환하여 졌다. 자리를 일어서 대문 밖으로 나와 다

32) 「삼십만원을 신문에 너흔 최선익 씨」.

33) 「삼십만원을 신문에 너흔 최선익 씨」.

시 한번 돌아다보니, 「궁궐」같이 훌륭하고 큰 집이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층계를 내리서면서 이 청년 문화사업가의 재출발의 기회를 궁급히 생각하며 낮은 가을의 좀 쌀쌀한 바람에 쌓여 골목을 빠져 나왔다.<sup>34)</sup>

최선익은 개성 갑부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인삼재배업을 비롯한 가업을 잇는 한편 개성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회사에 출자한 기업인이었다. 그러나 『삼천리』는 그를 ‘재출발’이 기대되는 ‘청년 문화사업가’라고 규정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 3. 인적 기반과 언론 사업

#### 1) 인적 네트워크

최선익의 활동 무대는 고향인 개성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츰 경성으로 그 무개가 옮겨지고 있었으며, 활동 분야는 언론·교육·사회·문화·체육 분야까지 폭넓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1920년대 청년 문화사업가 최선익이 경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첫째, 최선익이 개성의 송도고보나 송도상업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경성의 중앙학교로 진학했다는 사실이다. 중앙학교는 1908년 畿湖興學會의 인물이 세운 기호학교에서 출발했다는 점, 1910년 유길준이 설립했던 隆熙學校와 병합했고, 같은 해 기호흥학회가 湖南·嶠南·西北·關東 등 여러 학회와 합병하여 중앙학회가 되자 교명을 중앙학교로 개칭했다는 점, 1915년 김성수가 재정난에 처한 중앙학교를 인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5)</sup> 최선익이 중앙학교에 재학한 시기는 1917년부터 1920년까지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중앙고보의 인적 네트워크가 그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수는 최선익이 신입생인 무렵인 1917년 3월 교장에 취임했고,

34) 「삼십만원을 신문에 너흔 최선익 씨」.

35) 중앙교우회, 2008, 『중앙중·고등학교 중앙 백년사』 참조. 중앙학교는 1921년 사립 중앙고등보통학교로 개칭했다.

그해 12월 계동에 새 교사를 마련하며 이전했다.<sup>36)</sup> 김성수는 중앙학교를 인수한 이후 교지·교가·교기를 정하며 교육에 강한 열정을 펼치고 있었으며,<sup>37)</sup> 일제에 의해 강제 퇴학당한 보성고보와 경신학교의 학생을 중앙학교로 받아들일 정도로 학생들에게 깊은 애정이 있었다. 또한 계동의 중앙학교 교장 사택인 숙직실을 3.1운동 준비 모임 등 당대 지식인과 교사 및 학생들의 집합처로 삼았다고 한다.<sup>38)</sup> 따라서 비록 중앙학교를 중퇴했지만, 개성의 부호 최선익에게도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최선익이 언론계 경영자로서 활동하면서 관련을 맺었던 宋鎮禹, 安在鴻, 崔南善, 柳瑾, 玄相允 등은 중앙학교의 교장 혹은 교사를 지낸 인물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sup>39)</sup> 최 리차드 군 고국 방문 연회,<sup>40)</sup> 스웨덴 박물학 권위자 스텐 베리만(Sten Bergman)의 환영회<sup>41)</sup> 등 사회 유력인사들이 참여한 모임에는 중앙고보 출신의 인물들과 함께 최선익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최선익이 조선 소년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중앙고보 체육 교사 조철호와의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sup>42)</sup>

둘째는 경성 北村의 역사성과 지역성이다. 북촌의 범주는 현재의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일대를 말한다.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권력을 지닌 양반과 왕실 종친이 모여 살았고, 근세 초기에는 각 지방에서 관직이나 과거 준비 혹은 신식교육을 위해 이주하여 터전을 잡는 집안이 늘어났다.

최선익의 활동과 관련된 유명한 집안으로는 우선 충남 아산 해평윤씨 尹英烈 家를 꼽을 수 있다. 대한제국기 관료를 지낸 윤영렬의 첫째 아들 尹致旻는 기호흥학회를 후원하며, 중앙학교 교장을 지냈다. 둘째 아들 尹

36) 중앙교우회, 2008, 앞의 책, 175~176쪽.

37) 중앙교우회, 2008, 앞의 책, 185쪽.

38) 중앙교우회, 2008, 앞의 책, 202쪽.

39) 『동아일보』 1933.11.06.

40) 『동아일보』 1933.05.10.

41) 『조선일보』 1935.03.17 ; 『조선일보』 1935.03.18 ; 『조선중앙일보』 1935.03.17.

42) 『동아일보』 1945년 12월 24일 ; 『동아일보』 1946년 1월 31일 ; 이병구, 2021, 「관산 조철호 선생의 민족교육과 체육활동」, 『한국체육학회지』 60-6 ; 김형목, 2015, 「관산 조철호와 조선 소년군의 역사적 위상」, 『중앙사론』 42.

致昭는 안동교회 장로이자 경성일보를 운영했고, 광목을 생산하는 경성직뉴 회사 등을 운영한 사업가였다. 거대한 부를 일구었던 윤치소는 교동과 화동을 거쳐 1918년 안국동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대저택이 윤치소의 장남인 제4대 대통령 윤보선 고택이다. 윤치소가 이곳으로 이사한 이유는 유성준, 박승봉, 김창제 등 개화파들이 세운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가 가까웠던 것과 관계가 깊은데, 박승봉은 중앙학교의 2대, 유성준은 3대 교장으로 안동교회 설립에 참여한 장로이다.<sup>43)</sup> 1917년 윤치소의 경성직뉴주식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한 김성수의 양부 김기중도 북촌에 살았다.

당시 개성의 부잣집은 경성에 근거지를 하나쯤은 두었다고 전해지는데, 조선일보 개성지국장을 지낸 金鎭益의 가옥이 그 실례가 될 것이다.<sup>44)</sup> 이 즈음 최선익의 집안도 중앙학교로 유학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5)</sup>

북촌은 1920~30년대 접어들면서 막대한 자본을 지닌 신흥세력, 개화된 전문가, 지식인, 예술가 등이 사는 주거지로 변했다. 京城興山株式會社,<sup>46)</sup> 大昌興業株式會社<sup>47)</sup> 등 부동산매매 중개업체에게 매각된 대형 필지가 분할되면서 한옥·일식가옥·문화주택·근대한옥·도시한옥 등 다양한 가옥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43) 중앙교우회, 2008, 앞의 책, 224쪽.

44) 1912년 『토지조사부』에 경성부 북부 가회동 91번지의 소유자는 개성군 서부면 관전리 月泉에 사는 金鎭益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김조형 위원은 김진익이 1934년 와세다대학 정경과를 졸업한 그의 부친 金鎭浩와 一家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한다(김조형, 2017, 『김조형 구술 생애사』, 혜민).

45) 최선익과 개성 문인회 노파회의 동인이었던 김영보의 집은 수송동 60번지였다. 조선일보 기자 이선근은 만형이 경성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개성 출신은 아니지만 청춘 예찬으로 유명한 閔泰璵도 1909년 충남 서산에서 경성 수하동으로 올라와 경성고보에서 유학했다.

46) 1925년 설립된 경성흥신주식회사는 부동산매매 중개업과 금전대부, 재산위탁정리 및 관리, 농사 및 산림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였다. 대주주는 한성은행이었다[『조선은행 회사조합 요록』(1941)].

47) 1930년에 설립된 대창흥업주식회사는 동산·부동산 및 기타 관리 경영 매매, 금전대부 및 수표 할인, 채권 인수, 채무 보증 인수 등 일반 신탁 창고 및 각종 대리업무를 하던 회사였다. 대주주는 조선상업은행 행우회였다[『조선은행 회사조합 요록』(1941)].

계동에서 계산한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한 홍성학은 이 시기 충청남도 보령 웅천에서 상경했는데, 呂運亨(1886~1947)의 집과 가까워 서로 자주 왕래했다고 한다.<sup>48)</sup> 그런데 이 집은 최선익이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인 여운형에게 제공한 가옥이었다. 또 북촌에는 친도교 관련 인물들과 평안도 출신의 인사들도 많이 살았다. 孫秉熙, 李光洙, 趙炳玉, 현상윤, 吳鳳彬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sup>49)</sup>

한편 북촌의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재동보통학교를 다녔고, 근처의 경성 제일고보, 경성고등여학교,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북촌에서는 자녀들 학부모로서의 인연도 형성되었다. 1944년 최선익이 그의 집을 백인제에게 양도하게 된 계기도 그러하다.<sup>50)</sup> 즉 최선익과 백인제의 부인은 평소 정우회 활동을 함께 했고, 또한 재동보통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로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터에, 최선의 부인의 은근한 권유로 백인제의 부인 최경진이 이 집을 매입했다는 것이다.<sup>51)</sup>

셋째는 개성과 인연이 있었던 유력인사 혹은 개성에서 경성으로 와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해외 유학을 한 신진 엘리트 등과의 인적 연결 관계이다. 윤치소와 사촌 사이인 尹致昊(1866~1945)는 개성과 인연이 깊은 유력인사였다. 1905년 개성에 韓英學院을 설립했던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 최선익의 언론사 투자 액수와 개인 의견을 남겨 둘 정도로 잘 알고 지냈다.<sup>52)</sup> 또한 윤치호가 1927년 이상재 社會葬의 위원장을 맡을 때 최선익은 조선일보사 대표로 참석했다.<sup>53)</sup> 1932년 농촌의 정신적 경제적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農民修養所 개소식에는 윤치호와 중앙일보 주간 최선

48) 계산한의원은 계동 127-2, 여운형의 집은 계동 140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역사박물관, 2019, 앞의 책).

49) 손병희는 가회동170, 이광수는 가회동 187, 조병옥은 가회동 31-18, 현상윤은 가회동 1-35, 오봉빈은 가회동 30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역사박물관, 2019, 앞의 책).

50) 백인제는 1930년대 문화주택(가회동 1-31번지)에 정착한 뒤에 백병원 사택(저동 2가 85번지) 시기를 거쳐 최선익의 가옥(가회동 93-1번지)을 매입하게 된다(서울역사박물관, 2019, 앞의 책).

51) 백인제의 아들 백낙조와 최선익의 아들 최\*\*는 재동초등학교 졸업생 명부에서 확인된다.

52)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한국사료총서 번역서9) 1932년 6월 9일 목요일.

53) 『조선일보』 1927.04.09.

익이 함께 축사를 했다.<sup>54)</sup> 1933년 물산장려회가 진용을 다시 짤 때도 윤치호는 고문, 최선익은 선전부에 편성되어 있었다. 같은 해 보성전문학교 30주년 기념사업 발기총회에는 윤치호와 개성의 자본가 공성학과 함께, 최선익도 57명의 실행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sup>55)</sup> 또한 1937년 최선익은 윤치호가 조선체육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자 부회장 후보에 오르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sup>56)</sup>

개성사람으로 최선익의 언론 사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물은 金東成(1890~1969)이다. 그는 개성부호 집안의 3대 독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문학을 공부하고 한영학원에서 2년 동안 수학하다가, 1909년 미국 유학을 떠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했다.<sup>57)</sup> 그는 1921년 『동아일보』 기자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2차 만국기자대회에 참석해 부회장에 선출되었고,<sup>58)</sup> 만국기자대회 이후에는 미국 본토로 건너가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 군축회의도 취재했다.

김동성은 1924년 신석우가 조선일보를 인수할 때 발행인인 동시에 중국 특파원을 지냈으며, 조선일보 경영진으로서 신석우, 최선익과 같은 편에 섰는데, 1931년 8월 전 사장 신석우가 출자자 회의를 열고 복귀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조선일보를 떠났다. 이어 1932년 10월에는 최선익이 인수한 중앙일보 편집국장으로서 자리를 옮겼으며, 1936년 9월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되자 언론계를 떠났다.<sup>59)</sup> 김동성은 최선익의 언론사업에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였다고 판단된다.

54) 『중앙일보』 1932.12.05 : 『매일신보』 1931.12.05.

55) 『동아일보』 1933.11.06.

56) 『동아일보』 1937.07.04.

57) 『金東成訊問調書』, 『辛日鎔 外 二名(治安維持法 違反, 新聞紙法 違反)』, 大正14年(1925), 09.10.

58) 참가국 모두에게 준 직함이었지만 국제언론계에서 독립국 대우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조선일보사, 2008, 『조선일보 사람들 : 일제 강점기편』, 랜덤중앙하우스, 144쪽).

59)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되자 많은 기자가 매일신보로 전직했지만, 김동성은 자신의 鮮英辭典을 다듬으며 8.15까지 소일했다. 8·15 이후 그는 국내 최초의 통신사인 합동통신을 설립하고 초대사장에 취임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초대 공보처장을 역임했으며, 1950년 5월 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李瑄根(1905~1983)도 개성 출신으로 최선익과 연결되는 인물이다.<sup>60)</sup> 이선근은 1922년 휘문고보, 1929년 일본 와세다대학 사학과를 졸업했다. 이선근의 조선일보 정치부 활동은 일본 유학시절 신간회의 동경지회 창설을 주도하면서 맺은 조선일보 주필 안재홍과 편집국장 한기악과의 인연이라고 한다.<sup>61)</sup> 따라서 신석우가 1931년 안재홍, 이승복 등의 경영진 퇴진을 요구할 때에는 사원총회를 열어 맞섰고, 이후 조선일보에서 나왔으므로, 최선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1932년 송도고보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고, 1935년에는 개성의 기관지 『고려시보』가 주식회사로 출발할 때 최선익, 공진항 등과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1937년에는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상무를 지냈으며,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8.15까지는 개성의 부호 공진항 등과 만주국으로 건너가 만몽산업주식회사 상무직을 지냈고,<sup>62)</sup> 1939년에는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 협화회 협의원에 선출되었다. 개성과 경성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최선익과 직간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sup>63)</sup>

孔鑣恒(1900~1972)도 주목된다. 공성학의 둘째 아들로 경성에 올라와 보성고보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도지사[同志社]중학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이후 그는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 런던대학에서 2년, 그 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신진 엘리트였다. 그는 최선익이 조선중앙일보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기인으로서 참여했고, 김동성과 함께 취체역을 맡았다.<sup>64)</sup>

60) 손수범, 2009, 「이선근의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사교과서」, 『역사와 역사교육』 19.

61) 조선일보사, 2008, 앞의 책, 288~293쪽.

62) 이택휘, 2010, 「한국의 역사가-이선근」, 『한국사 시민강좌』 46, 일조각 ; 박친승, 2006, 「이선근의 한국사 연구와 역사관」, 김용덕·미야자마 히로시공편,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3』, 아연출판부, 193쪽.

63) 이선근 일기도 개성과 경성에서 활약한 집안이다. 안재홍이 신문용지를 살 돈이 없어 신문을 찍지 못하자, 이선근의 그의 맏형이 경영하던 상점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수표 용지를 꺼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조선일보사, 2008, 앞의 책, 290쪽).

64) 공진항은 8·15 이후 주프랑스공사, 1950년 농림부 장관, 1957년 농협중앙회 회장, 1961년 고려인삼공업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개성 출신 秦長燮(1904~미상), 高漢承(1902~1950), 馬海松(본명 마상규, 1905~1966) 역시 최선익의 언론·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다. 이들 세 명은 경성에서 공부하고 다시 일본에 유학했으며,<sup>65)</sup> 1923년 개성의 문예동인지 綠波會를 조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sup>66)</sup> 이들을 두고 『개벽』에서는 ‘개성에 적을 둔 김영보, 이기세, 최선익, 고한승, 진장섭, 마해송 닐공 동무’가 1923년 4월 1일 녹파회를 조직했다고 소개하고 ‘이는 기실 경성의 문인회’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했다.<sup>67)</sup> 최선익은 이들 세 명과 어릴 적부터 동무이자 재경성 개성 문인회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진장섭은 1917년 개성의 간이 상업학교를 졸업하고,<sup>68)</sup> 일본 아오야마 [靑山]학원, 도쿄 사범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1919년 『麗光』의 동인이었고, 方定煥(1899~1931)과 함께 1923년 색동회를 조직했는데, 여기에는 고한승이 함께했다. 『여광』의 멤버에는 총무 禹觀亭, 편집부장 고한승, 편집부원 任英彬, 외교부원으로 최선익 등 함께 했다.

고한승은 최선익과 함께 개성의 10대 부호로 꼽히던 인물로서,<sup>69)</sup> 1928년 최선익이 설립 운영한 개성상사주식회사의 중역이었고, 개성상사주식회사의 야구부 주장이기도 했다.<sup>70)</sup> 1929년에는 최선익과 함께 개성체육회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맡았다.<sup>71)</sup> 1921년 동경 유학생 단체 송경학우회를 이끌고 귀국하여 開城座에서 자신이 각색한 작품을 공연하기도 했다. 1927년 동화집 『무지개』를 펴낸 뒤 동화창작과 구연에 힘썼고, 어린이들의 지위와 인격 향상 및 복지 증진에 힘을 기울이는 등 진장섭, 마해송과 맥락상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마해송은 1919년 개성 만월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개성 간이상업학교를 졸업했다. 경성의 중앙고보를 다니다 중퇴하고 보성고보로 옮겼으나, 1920년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했다. 이런 인연으로 최선익과는 고향에서부터

65) 1921년 일본 유학생 공진대, 고한승, 진장섭은 개성에서 기독교청년회가 주관한 강연회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매일신보』 1921.07.17).

66) 녹파회 동인은 李基世, 金泳浦, 趙淑景 등이었다(『동아일보』 1923.04.20).

67) 「개성의 녹파회」, 『개벽』 제35호, 1923년 5월 1일.

68) 『매일신보』 1917.03.27.

69) 「삼천리 벽신문」, 1931년 10월 1일.

70) 『동아일보』 1929.08.15.

71) 『동아일보』 1929.07.14.

잘 알고 지냈다고 판단된다.<sup>72)</sup> 1921년 일본으로 건너간 마해송은 『모던일본[モダン日本]』 잡지사의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문화계의 거목으로 떠올랐다.

그가 『삼천리』에 기고한 「향수」는 고한승, 진장섭과의 관계와 당시 개성인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젊은 시절 권업채권을 산 일이 있었는데, 투기성을 띠다고 판단한 부친이 ‘고한승이도 진장섭이도 다 빠졌한 개성 종자 그인데 너만은 대체 어디 종자냐?’라고 꾸지람 들은 일을 소개하면서,<sup>73)</sup> 개성인은 ‘무섭다’ ‘각쟁이’라는 말을 듣는다 라고 적었다.

요컨대 1910년대 최선익은 개성에서 경성의 중앙학교로 진학하면서 북촌 일대에서 생활하게 되었던바, 중앙고보와 관련된 학연은 물론이요, 북촌의 지역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개성 출신으로 경성에서 고등보통학교를 다니거나 일본으로 유학한 인사들과도 교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선익은 김성수, 안재홍, 송진우, 여운형 등 당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김동성, 이선근, 공성학, 고한승, 진장섭, 마해송 등 개성 출신 인사들과의 인연을 맺었던 바, 이것이 결국 그가 언론·문화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인적 기반이 되었다.

## 2) 조선일보사 투자와 조선중앙일보사 경영

최선익의 활동은 3.1운동 이후 문화통치기의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 신문, 잡지 등의 발간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드러난다. 그는 1924년 의정부의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申錫雨가 경영난에 허덕이던 『조선일보』 판권을 인수한 이듬해에 불과 21살의 나이로 조선일보 경영에 공동 투자했다. 전남 영광의 대지주 趙楔鉉, 호남 갑부 愼九範, 김성수의 죽마고우 白寬洙, 개성 출신의 언론인 김동성도 이사진으로 포진했다.<sup>74)</sup>

조선일보를 인수할 당시 신석우가 6만 원, 최선익이 8만 원, 조설현이 8

72) 중앙교우회, 앞의 책, 2008, 607쪽.

73) 동경 마해송, 향수, 『삼천리』 1939년 4월 1일.

74) 「意見書」 『辛日鎔 外 二名(治安維持法 違反, 新聞紙法 違反)』, 大正14年(1925), 09.17.

만 원, 신구범이 3만 원을 각각 출자했다고 한다.<sup>75)</sup> 신석우는 당시 기호흥 학회의 평의원이자, 민족주의 계열 인사로 존경받던 李商在를 사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부사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당시 신문사 경영은 만만치 않았다. 신문용지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자본이 부족해 휴간의 위기를 맞아가 하면, 배일 기사로 인한 정간이 반복되면서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1920년 조선일보의 창간을 허가받은 芮宗錫, 1921년 그 관권을 인수한 친일파 송병준, 1924년 조선일보사를 새롭게 인수한 신석우·최선익을 비롯한 경영진에게도 신문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관건은 운영자금 확보와 자본금 확대였다.

하지만 신석우와 최선익을 비롯한 간부진 역시 1931년 5월 조선일보에서 물러나야 했다. 자금 사정이 다급한 나머지 총독부와 끈이 닿아 있던 米豆商 林景來의 돈을 빌려 쓴 것이 화근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원들이 임경래에게 발행권이 넘어간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휴간되는 사태를 맞이했다.<sup>76)</sup>

이후 신석우·최선익계의 간부들과 안재홍·이승복계의 간부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 전개되었고,<sup>77)</sup> 결국 1931년 7월 신석우에 이어 안재홍이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했다.<sup>78)</sup> 그러나 이승복측 사원들의 曹晩植과 조병옥의 조선일보 인수 반대와 최선익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견지동 11번지 사옥에 대한 임대료 9백만 원, 전 직원의 노동 승계와 전 지국의 수용 등이 제기되어 더욱 혼란에 빠졌다.<sup>79)</sup> 또한 임경래와 협상을 통해 여운형을 새 사장으로 추대해 조선일보를 재건하려는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 영업국장을 지냈던 언론계 이른바 '주의자'의 대부 홍증식은 여운형이 중앙일보의 사장으로 가도록 만들었고,<sup>80)</sup> 이에 조선일보는 1933년 3월 새

75) 「朝鮮日報社ノ狀況ニ干スル件」, 京鍾警高秘 第12162號-1, 大正14年(1925), 10.26.

76) 鄭泰哲, 「朝鮮日報 大騷動 真相」, 『별건곤』 제53호, 1932년 7월 1일; 정태철, 「暴力團·電氣鐵條網 使用 테로 化한 그 뒤의 朝鮮日報」, 『별건곤』 제55호, 1932년 9월 1일; 경기도 경찰부장, 「조선일보사 분규에 관한 건」, 사상에 관한 정보 3, 京高秘 제3491호.

77) 정태철, 「新舊 兩幹部의 勢力戰으로 問題 만흔 朝鮮日報社」, 『별건곤』 제44호, 1931년 10월 1일.

78) 조선일보사, 2008, 앞의 책, 90쪽, 102쪽.

79) 『중앙일보』 1932.11.11.

사주 방응모를 영입할 때까지 상당 기간 계속 내분에 휩싸였다.

신석우가 조선일보의 경영을 책임진 기간은 6년 6개월인데 이 기간에 얼마만큼의 자본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투자액과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자료마다 달라서 확실치 않다. 1931년 9월 『삼천리』는 신석우가 15만 원 조설현이 8만 원, 최선익이 18만 원, 이승복 계열 15만 원, 안재홍·朴有鑣이 각각 만원을 투자했다고 한다.<sup>81)</sup> 다른 자료에서는 신석우가 약 42만 원의 돈을 쏟아부었고, 최선익이 1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견지동 사옥을 짓는데 거금을 쏟아붓고 영업국장에서 물러났다고도 한다.<sup>82)</sup>

또 윤치호는 신석우, 안재홍, 최선익 등을 언급하며, ‘이들을 파멸시킨 그 신문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도움이 될만한 훨씬 더 유용한 다른 일들을 찾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특히 송도의 최선익 씨는 아무도 그 정확한 손실액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거의 10만 엔이 넘는 돈을 손해 보았다고 적었다.<sup>83)</sup>

역사적으로 보아서 조선일보 같이 돈을 많이 잡아먹은 신문사가 없다. 신석우, 최선익 씨 등의 그룹에서 없앤 돈만 40~50만 원에 달하고 안재홍, 이승복 씨 등의 그룹에서 없앤 돈도 120만 원은 넘고, 임경래 씨 손에서까지 없앤 돈과 조병옥 씨 손으로 없앤 돈을 합친다면 실로 60~70만 원의 거액을 소모하고도 나중에는 주식회사 하나 완전히 성립하지 놓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큰돈을 부수워 버렸 것만 어느 큰 영웅 하나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돌각담 무너지듯<sup>84)</sup>

이 글처럼 조선일보 운영은 투자자에게 모두 큰 손실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다. 신석우는 조선일보 경영에서 물러난 뒤, 삼불주의 즉 시사·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도, 보지도, 쓰지도 않겠다고 칩거에 들어갔

80) 조선일보사, 2008, 앞의 책, 163~167쪽.

81) 「삼천리 「벽신문」 제4호, 『삼천리』 제3권 제9호, 1931년 9월 1일. 환편 신석우는 최선익이 27만 원을 투자했는데, 사옥을 자기 명의로 찾아갔으니 다행이요 위안이 된다고 순회하기도 했다(신석우, 「新聞社長の 懺悔錄」, 『개벽』 신간 제2호, 1934년 12월 1일).

82) 조선일보사, 2008, 앞의 책, 2008, 111쪽.

83)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한국사료총서 번역서9) 1932년 6월 9일 목요일.

84) 漢陽過客, 「三大新聞 參謀長論」 『삼천리』 제6권 제8호, 1934년 8월 1일.

다. 이에 비해 최선익은 1932년 10월 다시 중앙일보사 경영에 대표자로 나섰다. 그 자금은 개성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 노선과 개성전기주식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조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sup>85)</sup>

당시 언론 분야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경영난으로 휴간과 폐간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동아일보와 함께 적어도 3개 이상의 신문사가 정립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sup>86)</sup> 이를 반영이나 하듯이 최선익은 1932년 尹希重과 함께 직전의 중앙일보 경영자 盧正一로부터 판권을 인수하여 속간에 들어갔다.<sup>87)</sup> 주간 겸 영업국은 최선익, 전무 겸 총무과장은 윤희중, 논설 주필은 李寬求, 정치부장은 김동성, 사회부장은 廉尙燮이 맡았는데,<sup>88)</sup> 발행권 변경은 1932년 12월 11일이었다.<sup>89)</sup> 이후 중앙일보는 1933년 2월 16일 여운형이 사장으로, 최선익이 부사장으로 자리를 바꾸었고<sup>90)</sup> 홍증식이 영업국장으로 임명되었다.<sup>91)</sup> 당시 최선익은 매일신보의 이상협, 동아의 장덕수, 조선의 이광수 등 여러 신문사 부사장에 비해 경험이 적고 나이가 젊어 '아귀 부사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sup>92)</sup>

최선익은 「본보 혁신에 臨 하여」라는 글에서 조선의 신문 사업도 이미 반세기에 이르고 있으므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첫째 과거 '사회적 목탁'이니 '공론의 明鏡'이니 하는 공상적, 기본적인 언론에서 벗어나 사회

85) 「시급 뉴스 조선, 중앙, 양신문 부활 내막」.

86) 李仁·鄭錫泰·金炳魯·韓龍雲·朴熙道, 「朝鮮日報 中央日報를 永久 完全하게 救出 方策」, 『삼천리』 제4권 제8호, 1932년 7월 1일.

87) 조선중앙일보는 1926년 11월 15일 李相協이 시대일보의 판권을 얻어 중의일보를 발행하면서 시작된다. 5~6년간 꾸준히 신문을 발행했으나 당국의 정간 처분을 당한 뒤에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1931년 7월 16일 휴간했다. 이윽고 같은 해 11월 노정일 등이 발행권을 인수하고 제호를 중앙일보로 바꾸고 혁신을 꾀했으나, 1932년 5월 6일 다시 휴간했다. 이것을 1932년 10월 27일 최선익과 윤희중이 인수하여 10월 30일 경성 북촌의 건지정 60번지의 양옥 2층에서 10월 21일 자로 석간신문을 발행했다(『조선중앙일보』 1936년 7월 8일).

88) 『중앙일보』 1932.10.31 ; 『매일신보』 1932.11.02 ; 『매일신보』 1931.10.31 ; 『동아일보』 1932.11.02.

89) 『중앙일보』 1932.12.11 ; 『조선신문』 1932.12.11.

90) 『중앙일보』 1933.02.17 ; 『매일신보』 1933.02.18.

91) 『중앙일보』 1933.02.23.

92) 多言生, 「秘中秘話, 百人百話集」 『별건곤』 제69호 1934년 1월 1일.

적 분화를 반영해야 하며, 둘째 신문의 존재를 경영적 관점에서 운영하되 신문사 간의 공동 번영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93)</sup>

한편 1933년 3월 7일에는 신문 혁신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중앙일보』의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제호를 바꾸었다.<sup>94)</sup> 같은 해 최선익은 조선일보 견지동 11번지 사옥 소유권 확인 및 명도 청구 소송에서 이승복, 안재홍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리하자,<sup>95)</sup> 『조선중앙일보』에 4회에 걸쳐 그 전말을 소개하고,<sup>96)</sup> 조선일보 견지동 사옥을 수리하여 조선중앙일보 사옥으로 사용토록 했다.<sup>97)</sup>

이후 조선중앙일보는 1933년 11월 1일 혁신 1년의 성과를 중앙일보 속간, 혁신호 발간, 활자개선, 13단계 실시, 正·副사장 선임, 改號, 사옥 이전, 增頁 단행, 수해구호반 활동, 잡지 중앙 발간 등이라고 정리했다.

1934년 조선중앙일보는 30만 원 자본의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었는데, 김정호·황중현·김기영·공진항·김동성 등 개성지역 인사들과 정치활동가 여운형, 기업가 朴興植, 지주 출신 윤희중 및 당시의 언론계, 법조계 등을 망라한 인물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sup>98)</sup> 이 과정에서 조선중앙일보는 조선 민족 생활의 다양한 방안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지식과 취미 아울러 건강 조선의 억센 정신을 보급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편집국 내에 체육부를 신설하고 이어 항공부를 신설하여 백두산을 탐험하였다.

이후 계속된 조선중앙일보의 증자과정에서 최선익은 1935년 5월 31일부로 조선중앙일보 부사장을 사임하고 새로 진남포 출신의 姜偉情이 부임했다.<sup>99)</sup> 이때 부사장 최선익, 영업국장 홍중식, 판매부장 朴敦緒 등 세 중요

93) 『중앙일보』 1932.12.11.

94) 제호 변경은 1933년 1월 20일에 단행했으나(『조선중앙일보』 1936.07.08), 신문지상에 바뀐 것은 3월 7일부터이다(『중앙일보』 1933.03.07).

95) 『중앙일보』 1933.03.02 ; 『조선중앙일보』 1933.05.18.

96) 『조선중앙일보』 1933.05.27, 「사필귀정이 된 사옥 소송의 전말」 ; 『조선중앙일보』 1933.05.28., 「방만한 경영책에 인한 추태와 분규 계속」 ; 『조선중앙일보』 1933.05.29, 「완전히 개인 소유라는 고등법원의 견해」 ; 『조선중앙일보』 1933.05.30, 「내부를 수리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

97) 『조선중앙일보』 1933.05.30.

98) 『조선신문』 1934.04.04 ; 『매일신보』 1934.04.04.

99) 『조선중앙일보』 1935.06.01 ; 『매일신보』 1935.06.04.

간부가 사임했으나, 최선익과 홍증식은 취체역 자리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sup>100)</sup> 이어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3월 30일 20만 원을 또 증자하여 50만 원의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었다.<sup>101)</sup>

조선중앙일보는 동아일보와 함께 1936년 8월 13일 자 신문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실으면서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 버린 이른바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폐간당했다. 최선익은 이 과정에서 소위 '사진 폐간' 문제와 주식회사 '청산문제'로 시비에 휘말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사장이었던 여운형과 부사장이었던 최선익은 서로의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는 가운데 여운형은 속간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주식회사 청산의 문제는 최초의 약속대로 청산 이후 잔액을 문화사업이라든지 기타 사회사업에 내놓지 않았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본인은 청산에 대해서는 하등의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단지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임명될 때 최선익이 여운형에게 제공한 가옥 문제에 대해서, 이는 청산위원회에서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가져온 것으로, 앞으로 이 집은 신문사의 동료들에게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sup>102)</sup>

반면 최선익은 조선일보 일장기 말소사건과 청산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sup>103)</sup> 자신은 이른바 「마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해 5월에 부사장이라는 책임을 면했고, 그 이듬해 9월부터는 신문 경영에 참여치 않았고 다만 주주로만 관여했다. 또한 조선중앙일보사의 2만 5천 주 중 성낙헌 씨가 9천 주, 윤희중 씨가 3천 주, 내가 7,840주로, 내가 가진 것은 전체의 1/3도 안 되는데, 왜들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sup>104)</sup>

100) 「三千里 機密室」, 『삼천리』 제7권 제6호, 1935년 7월 1일.

101) 이때 출자한 사람은 호남 거부로서 당시 충남제사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成元慶과 金世鎬인데, 성원경의 장조카가 동일은행 전무로 있던 成樂憲이다. 이러한 결심에는 尹希重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驚公, 「中央의 躍起와 朝鮮, 東亞 制霸戰 春秋戰國時代」 같은 三代 新聞戰, 『삼천리』 제8권 제4호, 1936년 4월 1일).

102) 여운형, 「나와 조선중앙일보」, 『비판』 1938년 10월.

103) 朴祥俊 씨가 쓴 「중앙일보 간부에게 보내는 항변」

104) 『삼천리』에 따르면 1주당 20원 전액 불입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선익은 7,800주에

이에 기자가 『시사신문』의 예를 보아 퇴직수당 5천 원은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자, 그것은 주주총회의 결정이며 권리 의무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속간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타격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웅색해서 그만두려 했다.'고 말했다.<sup>105)</sup>

기자가 다시 '가진 집 만해도 신문해나가는 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 말은 화가 난다. 내가 처자가 있는 집까지 희생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최선익은 '아무튼 유치원 한다고 5~6만 원 없애고 조선일보에 손땀다가 그도 없어지고 그러저러해서 내 처자 먹이는 거와 술값 이외에 한 40만 원 없앴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신문에 종사해서 결국 아무 곳도 해 노흔게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고리대업자의 근성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개성사람이니 세상이 무어랄지 몰으지만'<sup>106)</sup>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최선익이 경제적으로 웅색해졌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의 기사는 1937년 3월 25일 현재 그의 재산을 조사하고, 1년 수입과 지출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선익의 수입은 연 2만 1천여 원, 공제 정액 자산은 3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최선익이 조선중앙일보에서 출자를 거두고 청산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sup>107)</sup>

하지만 그는 조선일보에 이어 조선중앙일보까지 언론 사업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었는데, 『삼천리』는 최선익이 약 3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했고,<sup>108)</sup> 당사자인 최선익은 40만 원을 없앴다고 하였다. 당시 '조선사람 부자의 (재산은) 백만 원 내외'<sup>109)</sup>라고 한 것에 비추어 손실액 30~40만 원은 엄청난 규모의 돈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156,000원, 윤희중은 9,000주이나, 이중 4,000주가 유명주임으로 결국 5,000주에 100,000원, 윤희중이 3,000주에 60,000원, 강위정이 800주에 16,000원이라고 했다(『兩新聞社의 情報』, 『삼천리』 제8권 제4호, 1936년 4월 1일).

105) 一記者, 「中央日報 問題에 對하여-최선익 씨와 일문일답」, 批判社, 1938(이하 「중앙일보 문제에 대하여-최선익 씨와 일문일답」).

106) 「중앙일보 문제에 대하여-최선익 씨와 일문일답」 1938년 12월.

107) 최선익은 1937년 경성의 조선인 호별세 부과에서 1년 소득이 3만 4천 원으로 49등에 해당했다(『매일신보』 1937년 5월 16일).

108) 「삼십만원을 신문에 너흔 최선익 씨」.

109) 「삼천리 기밀실」, 『삼천리』 제6권 제5호, 1934년 5월.

그러나 최선익은 1936년까지 분명 조선중앙일보 대주주였고,<sup>110)</sup> 세간에 서는 속간에 필요한 자금 10만 원을 최선익이 출자해 주길 바랐던 때문인지, 여론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sup>111)</sup> 그러나 속간을 둘러싼 이면에는 여운형·최선익은 전 편집국장이던 김동성을 사장으로 옹립하려 했으나 조선총독부로부터 양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반면 성낙헌 씨 등은 최선익 씨 측의 자본이 더 이상 투자될 경우 경영권 상실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었다.<sup>112)</sup>

어떻든 이 소용돌이를 지난 이후 최선익의 언론·문화활동은 더 이상 찾아지지 않는다. 당시 잡지들은 그의 활발한 문화사업을 기대했지만, 그는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고 글씨를 쓰며 소일한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이화전문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sup>113)</sup>

신문사를 그만둔 후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화사업이라고 몇 해 동안 이 방면에 종사하였으나 성과를 일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서게 된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지요. 이제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읍풍농윝로 한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sup>114)</sup>

결론적으로 볼 때 1925년 조선일보 경영에 투신한 이후, 1935년 조선중앙일보 부사장직에서 물러나기까지 10여 년간, 청년 언론사업가로서의 최선익의 삶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시 『삼천리』에서는 돈을 먹는 출판이라는 글을 통해 신문과 잡지사의 경영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죽는 돈[死金]’을 얼마나 던져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 죽는 돈이 조선일보는 모두 100만 원은 될 것이요, 동아일보 역시 1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조선중앙일보도 50만 원은 썼을 것이라고 했다.<sup>115)</sup>

110) 당시 삼천리에서는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방응모 22,000주, 高一淸 10,000주, 盧義根 500주, 주식회사 조선중앙일보사 최선익 6,000주, 윤회중 2,000주, 김동성 1,000주, 여운형 500주라고 했다(「삼천리 기밀실」 제8권 제8호 1936년 08월 01일).

111) 「兩大新聞 特報」, 『삼천리』 제8권 제12호 1936년 12월 1일.

112) 「삼천리 기밀실」, 『삼천리』 제8권 제4호, 1937년 1월 1일.

113) 「삼천리 기밀실, 長安 甲富 秋收 調査」, 『삼천리』 제8권 제12호 1936년 12월 1일.

114) 최선익, 1937, 「閑地 생활」, 『朝光』.

115) 「돈을 먹는 出版」, 「青春」, 「東光」, 「朝鮮之光」, 「開闢」, 「朝鮮文壇」, 「高麗時報」들

그러면서 문화사업이란 얼마나 눈물로써 감사해야 할 것임을 민중 계군은 체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sup>116)</sup> 이처럼 일제강점기 언론·문화에 대한 투자는 이에 대한 경영 철학과 방침 없이는 아무나 쉽게 뛰어들 사업이 아니었던 것이다.<sup>117)</sup>

#### 4. 교육 사업 및 사회·문화 활동

##### 1) 수송동유치원 설립 및 운영

3.1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에 일대 전환을 불러일으켰는데, 교육 분야에서 선교사나 기독교 계통의 유치원과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소위 구국유치원이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도 주목할 점이다.<sup>118)</sup>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직업 활동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는데,<sup>119)</sup> 직업이 여성의 경제적 자유와 자립을 확보하는 기초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치원 보모도 유망한 여성 직업으로 소개되었고, 자연히 그들의 활동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최선익은 1925년 4월 옛 민영환의 대저택이 분할된 터에 최신의 설비를 갖춘 ‘壽松洞幼稚園’을 설립하고, 3세~7세까지의 원아를 모집했다.<sup>120)</sup>

꽃다운 어린아이들이 모히는 곳은 턱국이라고 할 수 있스니 그들의 태육을 발달 식히고 덕을 기르고 지식을 넓힐 즐거운 동산이 새로히 생겼습니다. (중략) 젊은 신사 최선

---

은 얼마?], 『삼천리』 제9권 제4호, 1937년 5월 1일(이하 「돈을 먹는 출판).

116) 「돈을 먹는 출판.

117) 조선중앙일보는 8·15 이후 1947년 7월 1일 속간되었으나 1949년 9월 15일 폐간되었다.

118) 김옥련, 1993, 『유아교육사』, 서울 : 박신경, 1998, 「한국유치원 교육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 『신학과 목회』 12 참조.

119) 유각경, 「여성해방과 경제자유」, 『청년』 1926-4, 6쪽.

120) 수송동 46번지 박동민 중정공 집터이다. 모집 원아의 정원은 보도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약 30~50명 내외로 판단된다(『조선일보』 1925.04.04).

익세의 뜨거운 정성으로 거대한 재산을 드러 모든 기구를 완전히 설비하고 (하략)<sup>121)</sup>

이 수송동유치원의 원장은 최선익이었지만, 실제 경영은 金泳備가 맡았고, 보모는 이화전문학교 유치원 사범과를 졸업한 郭誠實이 담당했다.<sup>122)</sup>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김영보가 유치원의 운영을 맡았다는 점이다. 김영보는 최선익, 진장섭, 고한승, 마해송과 함께 개성 문인회 녹파회의 멤버였다.<sup>123)</sup> 또 연극 문학과 무대예술을 연구하는 劇文會를 창립한 문예가로서, 극문회 창립총회는 그의 집인 경성 수송동 60번지에서 열렸다.<sup>124)</sup> 이 극문회의 동인에는 최선익, 김영보, 고한승이 함께 있었다. 따라서 최선익은 문예가의 자질과 어린이 교육과 지위 향상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그는 에스페란토 활동을 같이한 李承根과 함께 아동 독본용 『옥토끼』를 저술했고, 이 중 「쥐와 고양이», 「자루사구멍」은 매일신보에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결국 최선익은 유치원 사업에 진정성을 갖고 수송동유치원을 설립했고 실질적 운영은 친구인 김영보에게 맡긴 것이다.<sup>125)</sup>

보모 광성실은 이화여자전문학교 유치원 사범과를 졸업한 인재로, 1921년 6월 해주 여자 청년회에서 연사로 나설 정도로 여성운동에 적극적이었고,<sup>126)</sup> 1922년에는 해주 남본정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sup>127)</sup> 1923년에는 해주 의정여학교 교사 생활을 접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는데,<sup>128)</sup> 관동대 지진으로 귀국하여 황해도 웅진읍 미감리교회 유년 주일학교를 맡아 가르치고 있던 신여성이었다.<sup>129)</sup> 이런 점으로 미루어 1925년 그녀가 수송동유치원의 초대 보모로 임용된 데에는 그녀의 학력과 실력뿐 아니라 개성과의

121) 『조선일보』 1925.04.08.

122) 『조선일보』 1926.05.11.

123) 개성에는 개성 공립상업학교와 사립 개성학당 상업학교가 있었는데, 김영보는 개성학당 상업학교 출신이다(『동아일보』 1920.06.16).

124) 『동아일보』 1925.09.14 ; 『매일신보』 1925.09.12. 한편 김영보는 개성에 있는 학생 중심의 문예 동호자 모임인 星文會에서 그의 각색 작품인 동심자가, 그의 저작인 나의 세계 등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조선일보』 1926.08.02).

125) 『매일일보』 1930.06.07 ; 『매일일보』 1930.06.08.

126) 『동아일보』 1921.06.04.

127) 『동아일보』 1922.04.28.

128) 『조선일보』 1923.03.29.

129) 『동아일보』 1924.02.06.

인접 지역에서 활동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최선익은 고향 동무이자 녹파회의 동인이었던 김영보에게 수송동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김영보는 방정환과 함께 색동회 조직에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지위와 인격 향상 및 복지에 힘을 기울였던 진장섭, 고한승, 마해송 등과 가까운 인물이었다. 또한 곽성실은 어린이 세계는 화평한 천국으로 문학과 종교의 관념을 어렸을 때부터 양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sup>130)</sup> 따라서 최선익의 수송동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은 어린이날에 기부금을 내는 소극적 형태를 벗어나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지위 향상에 대한 구체적 실천 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131)</sup>

수송동유치원에서는 매주 18시간씩 유희와 창가, 담화와 수예를 가르쳤다. 개학은 4월 11일, 보육료는 한 달에 1월 50전이였다. 원장 최선익은 '아직 초장이라서 변변치 못하다', 하지만 '어린이를 중심으로 사랑에 넘치는 평화스러운 적은 왕국이 되기를 기약한다', 또 '지금은 2만 2천 원의 돈으로 집을 사서 수리하였는데, 땅이 약 4백여 평이 되니 장래는 약 3백명의 원아를 수용하려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sup>132)</sup>

수송유치원의 초창기는 최선익이 조선일보 경영에 참여하던 때여서, 세간에서는 '신문기자 자녀가 많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알려졌는데,<sup>133)</sup> 보육증 수여식에는 윤치호를 비롯한 유명 인사가 축사를 할 정도였다.<sup>134)</sup> 그러나 수송동유치원의 특징은 곽성실,<sup>135)</sup> 崔敬淑<sup>136)</sup>, 全永恩 등 유치원의 부모들의 교육 방침과 내용에서 드러났다.

1929년 수송동유치원 원장을 맡은 이화전문학교 유치원 사범과 출신 최경숙은, '현재 조선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동요나 동화는 서양 것이나 일본 것을 번역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고유한 우리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피력하고, 교재 개발에 부단히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sup>137)</sup> 또한

130) 『조선일보』 1926.01.01.

131) 『중외일보』 1927.04.28 ; 『매일신보』 1927.04.29.

132) 『조선일보』 1925.04.14

133) 『동아일보』 1926.02.01.

134) 『매일신보』 1927.03.26.

135) 『조선일보』 1929.06.04.

136) 『동아일보』 1928.10.11.

137) 『조선일보』 1929.04.16.

보모 전영은도 조선일보에 달나라에서 온 토끼라는 유치원 동화를 실었다.<sup>138)</sup> 수송동유치원 경영진의 교육철학이 교수자들의 교육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수송동유치원은 1932년 조선일보사 사옥이 일시 폐쇄되었을 때에는 조선일보사의 임시 사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즉 조선일보의 편집 겸 발행권이 임경래에게 넘어가자 편집, 영업국의 기자, 사원과 공장의 직공들이 사원회를 조직하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당시 간부들과 제휴하여 신조선이라는 주간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최선익, 신석우가 사옥을 일시 폐쇄하고 최선익이 운영하는 수송동유치원 내로 이전했던 것이다.<sup>139)</sup> 하지만 수송동유치원 역시 최선익이 조선중앙일보에서 손을 떼는 어느 즈음에는 경영을 포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사회단체 활동 및 기부

최선익의 사회단체 활동은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 경영진으로 참여하던 시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언론사의 활동 방향과 일정하게 부합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사회단체 활동을 단순히 언론사 임원으로서의 참여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관심 분야와 인적 관계에 따라 적극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선익의 사회단체 활동은 고향인 개성에 기반을 둔 활동도 있었지만, 개성과 경성이 상호 연결되는 활동, 나아가 경성을 중심으로 전국적 영향력을 끼친 활동이 상호 연동되어 있어서, 당시 사회상을 살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선 조선일보 경영진 시절 최선익의 사회단체 활동을 살펴보자. 이 시기 주목되는 것은 순종 인산일을 기해 조직된 개성 상민 봉도단과 신간회 활동이다. 최선익은 1926년 순종 인산을 계기로 개성 갑부 박우현, 공성학, 김원배, 손봉상 등과 함께 순종 장례를 위한 재원 추렴과 개성 상민 봉도단을 조직하고 성금을 기부했다.<sup>140)</sup> 곧이어 그는 6·10만세 운동에 자금을 받아 탄생한 민족유일당운동 신간회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

138) 『조선일보』 1929.04.16 : 『조선일보』 1929.07.17 참조

139) 『동아일보』 1932.06.03.

140) 『동아일보』 1926.05.13 : 『시대일보』 1926.05.15.

다.<sup>141)</sup> 그리고 선거 방식으로 뽑힌 신간회 35명의 간사 중 한 명으로서 출판부를 맡았다.<sup>142)</sup> 조선일보 경영진의 일원이었던 최선익이 신간회의 발기인이자 간사가 된 것은 일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그가 문일평·백관수·조만식·한용운·홍명희·신석우·이상재·안재홍 등 당대의 지도층 인물과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은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문필가의 소질을 지니고 있던 최선익은 1923년 개성 출신 문예인들의 모임인 녹파회와 그 잡지 『풍선』 발간에 참여했는데<sup>143)</sup> 이 중에는 새싹회 등과 연계되어 어린이 인권에 관심을 지닌 인물이 많았다. 이런 까닭인지 최선익은 1925년 5월 1일 경성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 운동회에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돈 20원을 기부했다.<sup>144)</sup> 이때 조선일보사는 선전지 30만 매를 기부하고 도서·지물·인쇄업체로부터의 회사와 개인의 기부를 끌어냈는데, 여기에도 조선일보 경영진으로서의 최선익의 역할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선익의 어린이날 지원 활동은 소년연맹의 일원으로서, 개성에서의 어린이날을 지원하고 경성의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는데,<sup>145)</sup> 이는 수송동유치원의 실제 운영을 맡았던 김영보와 오랜 친구였던 진장섭, 마해송 등과 교류와 사상적 일치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선익은 조선만국어연맹 즉 에스페란토어연맹(이하 '에스'연맹)에도 참여했다. 당시 국제공용어 에스페란토어는 일본이 강제하는 언어정책을 극복하고 조선을 세계 체제 안에 존립시키기 위한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었다. 金億(1895~?)을 중심으로 에스페란토협회가 설립되었고, 동아일보가 그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었다.<sup>146)</sup> 이후 1924년 '에스'연맹이 결성되었는데, 이때 '에스'연맹의 선전부에는 백남규·홍명희·임창순·김진호 등이, 편집부에는 김억·장석태 사회부에는 박현영·변영로 등이 있었고, 최선익은 이승근과 함께 서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sup>147)</sup>

141) 『동아일보』 1927.01.20 : 『중외일보』 1927.01.20.

142) 『중외일보』 1927.02.17 : 『중외일보』 1927.02.23.

143) 『동아일보』 1923.04.20 : 「개성의 녹파회」, 『개벽』 35, 1923년 5월 1일.

144) 『매일신보』 1925.05.04.

145) 『중외일보』 1927.04.29 : 『중외일보』 1928.04.22.

146) 임수경, 2015, 「『동아일보』의《에스페란토 欄》(1924) 연구」, 『어문학』 128, 참조.

147) 『시대일보』 1925.11.02.

다음으로 최선익이 조선중앙일보의 경영진이었던 시절의 활동을 살펴보자. 이 시기 최선익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둔 분야는 체육 분야이다. 이는 조선중앙일보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편집국 안에 체육부를 둔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선중앙일보는 1933년 조선체육회 주최의 제1회 전조선 풀마라톤 대회를 후원하고,<sup>148)</sup> 1935년에는 조선중앙일보 주최로 중국 최고의 東華 축구팀 초청 국제대회를 열었다. 이 국제 축구대회의 준비위원회의 명예회장은 재경 중화민국총영사 范漢生과 윤치호였고, 회장은 여운형, 부회장은 최선익이 맡았다.<sup>149)</sup>

최선익은 야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그가 운영하는 개성상사주식회사에 야구부를 두고 운영했던 사실은 이미 언급했거니와,<sup>150)</sup> 1931년 全開城 野球大會에서는 본부 위원을 맡았다. 이때 위원장은 공진태, 본부 위원은 金鶴炯, 고한승, 劉基豊, 李聖得 등이 참여했는데, 고한승은 심판부에 최선익은 서기부에도 소속되어 있었다.<sup>151)</sup>

이 밖에도 최선익은 조선 최초의 전조선 여자 빙상경기 대회 후원,<sup>152)</sup> 경성과 평양축구단의 정기축구대회,<sup>153)</sup> 경성상공협회 주최로 열리는 全京城 商工聯合 運動大會에 참여했고,<sup>154)</sup> 개성시민 대운동회에는 여운형과 함께 개성을 다녀가기도 했다.<sup>155)</sup>

한편 이 시기 최선익은 문화·교육·복지 분야에도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다. 朝鮮文興會 창립에 관계하여 문헌수집·도서출판·강습회 개최·잡지 발행 등을 도왔으며,<sup>156)</sup> 민립대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활동한 민족교육운동단체인 조선교육협회,<sup>157)</sup> 이화여자전문학교의 후원 모임,<sup>158)</sup>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sup>159)</sup> 등은 물론 국산품

148) 『중앙일보』 1933.04.26.

149) 『조선중앙일보』 1935.04.12 ; 『조선중앙일보』 1935.04.19.

150) 『동아일보』 1929.08.15.

151) 『경성일보』 1931.06.23.

152) 『동아일보』 1934.01.28.

153) 『조선중앙일보』 1935.04.13.

154) 『동아일보』 1933.05.07 ; 『매일신보』 1934.04.26 ; 『조선중앙일보』 1935.05.01.

155) 『고려시보』 1935.06.01.

156) 『동아일보』 1933.01.13 ; 『중앙일보』 1933.01.13.

157) 『동아일보』 1928.06.18.

158) 『중앙일보』 1932.12.17.

장려 민족운동단체인 物産獎勵會에도 참여했다.<sup>160)</sup>

특기할 사실은 1935년 조선과학지식보급회에서 초청한 스웨덴 박물학의 권위자 스텐 베리만(Sten Bergman)의 환영회이다. 여기에는 윤치호, 이인, 송진우, 여운형, 방응모, 현상윤, 김동성, 윤희중, 김성수, 홍증식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sup>161)</sup> 이 행사는 송도고보에 있던 김병하, 석주명 등이 주도한 송경곤총연구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최선익이 더욱 적극적이었으리라 생각된다.<sup>162)</sup> 이 밖에도 어린이날 맞이 아동 무료진단,<sup>163)</sup> 심지어는 조선요릿집 명월관에서 열린 최 리차드 군 방문 음악 연주회 발기인,<sup>164)</sup> 당시 화단에서 활약하던 盧壽鉉(心汕, 1899~1978)의 개인전도 후원한다.<sup>165)</sup>

조선중앙일보의 구호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최선익은 1932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중대사업으로 추진한 나병 예방 발기인회에 송진우, 조만식과 함께 신문사 계통으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sup>166)</sup> 1934년에는 태풍 재난으로 오사카·교토·고베 등의 조선인 지구 20여 만 명의 이재민을 위해 구호사업을 펼쳤는데, 이때 조선중앙일보사가 3백 원, 최선익과 윤희중이 각각 1백 원씩을 냈다.<sup>167)</sup>

한편 조선중앙일보 경영 시기 최선익은 개성에서의 문화·교육 분야의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는 개성의 주요 인사들이 조선중앙일보 발기인에 많이 참여한 것과 관련되며, 고려시보 운영의 주역들과도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개성 여자공보학교 후원회 이사<sup>168)</sup> 개성부제 실시기념 박물관 설치에 따른 기부,<sup>169)</sup> 청년활동 단체인 高麗青年會 활동,<sup>170)</sup> 황해 수리조합 폐지운동,<sup>171)</sup> 개성 제3 公普 설립

159) 『동아일보』 1933.11.06.

160) 『동아일보』 1933.05.25 ; 『매일신보』 1933.05.26.

161) 『조선일보』 1935.03.17 ; 『조선일보』 1935.03.18 ; 『조선중앙일보』 1935.03.17.

162) 『조선일보』 1931.05.13 ; 『조선일보』 1931.05.14.

163) 『동아일보』 1933.05.04.

164) 『동아일보』 1933.05.10.

165) 『매일신보』 1942.10.06.

166) 『매일신보』 1932.12.04.

167) 『조선중앙일보』 1934.09.23. 폭풍·폭우로 인한 재해 복구 모금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외일보』 1930.07.22 ; 『동아일보』 1934.08.13.

168) 『시대일보』 1926.07.23.

169) 『조선신문』 1931.03.07 ; 『매일신보』 1931.05.07.

기금 활동<sup>172)</sup> 등에 참여했다. 또 1934년에는 개성의 3대 사업이라 불린 공설 수영장과 활빙장 건설비 1만 5천 원, 상업학교 학급 증설비 1만 5천 원, 송도고등보통학교 재단법인 기부금으로 개성부민이 부담한 4만 원 등 도합 7만 원의 거액을 전부 부민의 기부로 부담키로 했는데, 최선익도 이에 동참하여 1천 2백 20원을 기부했다.<sup>173)</sup> 개성에 머무르며 개성의 경치를 그린 서양화가 金鍾泰(繪山, 1906~1935)의 작품 전시회를 후원하기도 했다.<sup>174)</sup> 이렇게 보면 최선익의 활동과 행보는 화려하지 않으나,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확실한 뜻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정리해보면 최선익의 사회단체 활동 및 기부는 윤치호, 조만식, 여운형, 방응모, 김성수 현상윤 등 원로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김정호, 황중현, 김기영, 공진향, 김동성, 고한승, 김영보 등 개성의 갑부와 신진 엘리트들과 연결되고 있었다. 이에 삼천리에서는 그를 조선 천지에 통쾌한 인물 8명 중의 하나로 기술한다.

男兒 一代에 軍卒 백만 명이 거느려 못보겠거든 차라리 黃金 백 만원을 끼고 이 세상을 제 마음대로 주물너 봄이 었지 痛快치 안으랴. 2천만이 사는 조선천지에 이러한 통쾌한 인물을 우리들은 이미 「김성수, 박홍식, 閔大植, 최선익, 방응모, 朴榮喆」의 여섯분에게서 보았고, 이번엔 또한 윤치호, 金基德 兩氏에게서 보는 터이다.<sup>175)</sup>

최선익은 1930년 당시 김성수, 민대식, 박영철, 윤치호와 함께 先代로부터 내려오던 유산을 계승하여, 人格의 힘으로써 그 돈의 일부분을 사회적 公財로 내놓은 이름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선익은 조선중앙일보의 운영에서 손을 뗀 무렵부터는 각종 교육·사회 단체와도 손을 끊고 기업가로서의 조용한 삶을 살았다.<sup>176)</sup>

170) 『동아일보』 1931.09.22.

171) 『동아일보』 1931.01.18 ; 『매일신보』 1931.01.18 ; 『경성일보』 1931.01.18.

172) 『동아일보』 1932.11.18 ; 『중앙일보』 1932.11.11.

173) 『조선중앙일보』 1934.07.02.

174) 『매일신보』 1931.12.19.

175) 「삼십만원을 신문에 너흔 최선익 씨」.

176) 최선익은 1937년 매일신보가 주최하는 만주국과 北支那 시찰단(『매일신보』 1938.

## 5. 맺음말

이 논문은 최선익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개성의 인삼 자본가가 근대적 기업가로 변신하고 다시 언론·문화사업에 투신하면서, 활동 무대를 고향인 개성에서 서서히 중앙의 경성으로 이동시킨 인물에 대한 실증적 사례 연구이다.

최선익은 개성 갑부의 아들로서, 부친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불과 16세의 나이에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된 벼락부자였다. 그의 부친 최성구의 경제적 기반은 인삼 재배업과 시변제도 등 개성의 전통적 산업이었다. 하지만 그는 개성지역의 경제관습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홍보와 마케팅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1920년대 개성의 부호와 신진 엘리트들과 연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전기업, 고무업, 직조업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직접 개성상사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근대적 기업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사업장을 인천과 경성으로 확대하면서, 무역업·매매업 및 금융과 주류회사도 운영한 실업가였다.

하지만 1920~1930년대 언론에서는 최선익을 ‘청년 문화사업가’로 규정하고 그의 행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1924년 신석우가 경영난에 허덕이던 『조선일보』의 판권을 인수할 때 함께 공동투자했고, 1932년에는 스스로 『조선중앙일보』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됨으로써 조선의 대표 언론사의 경영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1925년에는 최선의 설비와 교육자를 초빙하여 경성에 수송동유치원을 개원했는데, 이는 당시 어린이의 권익과 인권 신장 그리고 교육을 통한 구국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최선익은 1927년에는 신간회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비롯하여 사회·문화·교육·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과 각종 모임과 단체에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였다.

최선익이 고향이 아닌 경성에서 그것도 청년 사업가로서 당대 최대의

---

03.13). 中支那 및 대만산업시찰단(『매일신보』 1939.01.10.)에 참가하면서, 朴敦緒, 崔文愚, 李容植 등과 친분을 나누고 지냈던 것으로 판단된다(『드른 풍월기』 『삼천리』 제8권 제1호 1936년 1월 1일).

언론사에 투자하고 아울러 활동 분야를 언론·교육·사회·문화·체육 분야까지 폭넓게 확대할 수 있었던 기반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는 최선익이 개성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경성의 중앙학교로 진학하여 학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점, 북촌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전통 양반 및 신지식인층과 교류하고 인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개성 출신으로 경성에서 고등보통학교를 다니거나 일본으로 유학한 인사들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선익은 김성수, 안재홍, 송진우, 여운형 등 당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김동성, 이선근, 공성학, 고한승, 진장섭, 마해송, 김영보 등 개성 출신 인사들과의 인연을 맺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 그가 언론·문화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인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인적·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최선익은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투자하고, 수송동유치원을 운영했지만, 청년 문화사업가로서의 10여 년은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당시 언론사 경영은 심한 자금난으로 신문용지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고, 排日 기사로 인한 잦은 정간과 폐간은 인건비와 각종 채무를 증가시켜 신문사 경영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직격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경영을 위한 증자가 자주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출자자 간의 경영권 다툼도 일어났다. 이에 언론사 출자자들의 '죽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럼에도 당시 사회는 조선에 거대 언론사가 3개 정도는 버티줘야 한다는 여망이 있었고, 따라서 금전적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 언론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눈물로써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애기 부사장'이라 별칭 되던 최선익 역시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 경영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수송동 유치원 운영도 접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럭저럭 30~40만 원을 허비했다고 술회했다. 당시 조선의 갑부라면 재산이 100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 이 정도의 손실액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익이 조선중앙일보에서 투자를 거두는 과정에서, 여론은 최선익에게 더 많은 출자를 하거나 청산 자금을 더 배정해야 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조선중앙일보의 운영에서 손을 뗀 이후, 최선익은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접고, 실업가로서의 조용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해방정국에서 경성

전기주식회사의 상무로서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논문으로 다루려 한다.

주제어 : 개성, 개성상인, 최선익, 김성수, 신석우, 여운형, 김동성, 고한승, 김영보, 이  
선근,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논문투고일 : 2022. 04. 20

논문심사시작일 : 2022. 04. 20

논문게재확정일 : 2022. 05. 01

## 참고문헌

### 1.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신문』  
『중외일보』  
『삼천리』 『별건곤』 『개벽』 『조광』  
『대한민국인사록』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 2. 저서

김조형, 2017, 『김조형 구술 생애사』, 혜민.  
서울역사박물관, 2019, 『北村 十一家의 오래된 기억』.  
조선일보사, 2008, 『조선일보 사람들 : 일제 강점기편』, 랜덤중앙하우스.  
중앙교우회, 2008, 『중앙중·고등학교 중앙 백년사』.

### 3. 논문

김형목, 2015, 「관산 조철호와 조선 소년군의 역사적 위상」, 『중앙사론』 42.  
손수범, 2009, 「이선근의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사교과서」, 『역사와 역사교육』  
19.  
양정필, 2007,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 『역사와 현실』 63.  
이택휘, 2010, 「한국의 역사가-이선근」, 『한국사 시민강좌』 46.  
임수경, 2015, 「『동아일보』의 《에스페란토 欄》(1924) 연구」, 『어문학』 128.

## Newspaper Company Management and Cultural Business Management by Choi Sun-ik, a Merchant in Gaese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ee, Chul Sung

This is a case study of Choi Sun-ik, an entrepreneur from Gaese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changed from being a ginseng capitalist in Gaeseong to being a modern entrepreneur, and gradually moved his activities from his hometown of Gaeseong to Seoul while investing in newspapers and cultural businesses.

Choi Sun-ik, the son of a wealthy person in Gaeseong, suddenly became a millionaire when he inherited a huge fortune at the age of 16. His father Choi Seong-gu's foundation was engaged in traditional Gaeseong industries such as ginseng cultivation and a loan business. However, in the 1920s, he invested in electronics, rubber, and weaving in the form of a joint stock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wealthy and youthful elites of Gaeseong. He actively engaged in entrepreneurial activities, such as directly operating Gaeseong Trading Co., Ltd. In the 1930s, he expanded his operations to Incheon and Seoul, also operating trade, finance and liquor companies.

He was described by the media as a "young cultural entrepreneur" and he was very active in the 1920s and 1930s. This is because,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he jointly took over the publishing rights of the Chosun Ilbo with Shin Seok-woo in 1925, and took over the publishing rights of the Chosun JoongAng Ilbo in 1932. Also, in 1925,

he invited a professional operator and childcare teacher and opened the Susong-dong Kindergarten equipped with the latest facilities.

Choi Sun-ik's human network was formed of three elements. First, he entered Seoul Choongang High School without going to high school in Gaeseong ; second, he was able to communicate with traditional aristocrats and new intellectuals while living in Bukchon, Seoul ; Third, he was in close contact with Gaeseong people who studied in Seoul or Japan. As a result, he made connections with influential figures of the time such as Kim Seong-su, Ahn Jae-hong, Song Jin-woo, and Yeo Woon-hyeong, as well as Kim Dong-seong, Lee Seon-geun, Gong Seong-hak, Ko Han-seung, Jin Jang-seop, Ma Hae-song, Kim Young-bo, etc. Using those connections, he was able to advance into newspapers and cultural businesses.

However, at that time, newspaper management suffered from severe financial difficulties, frequent business suspensions, and increasing debt. In the process, Choi Sun-ik also suffered huge personal losses as he gave up the management of the newspaper and the operation of the Susong-dong Kindergarten. It is clear that newspapers and cultural business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required managers with a clear will rather than a clear investment profit.

After leaving the Chosun JoongAng Ilbo, Choi Sun-ik lived as an entrepreneur and did not engage in cultural business. After liberation on August 15th, he again stood at the center of social controversy as an executive of KyungSung Electric Co., Ltd. Research on this episode of his life is a task for the future.

<p>Key Words : Gaeseong, Choi Sun-ik, Kim Seong-woo, Ahn Jae-hong, Song Jin-woo, Yeo Woon-hyeong, Kim Dong-seong, Gong Seong-hak, Ko Han-seung, Jin Jang-seop, Ma Hae-song, Kim Young-bo, Chosun Ilbo, Chosun JoongAng Ilbo, Dong-A Ilbo</p>
--

